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김 현 실
간호학박사/교수
경산대학교 간호학부

I 서 론

부모의 보호 아래서 어린아이로 대접받아온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학교환경의 변화와 함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는 대략 13~15세에 해당하는 조기청소년기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사춘기를 맞이함으로써 급격한 신체적, 성적 성숙이 두드러지게 된다.

사춘기는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1~2년 일찍 시작되며, 이때 여아는 초경을 경험하게 되고, 남아는 변성과 체모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인지적 발달도 시작되어 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와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이전 보다 논리적, 추상적 원칙에 의하여 생각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의 사고에 몰두하여 다소 고립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자기중심적 사고로 성인의 생각과 대립할 수 있어, 교사, 부모 등의 기성세대에 대하여 반발할 수도 있다.

이 시기는 또한 정서적 변화가 심한 시기이다. 특히 낙관과 비관, 자만과 수치, 애정과 증오와 같은 상반되며, 극적인 감정이 공존하게 된다. 이러한 이 시기만의 특성 때문에 결국 서로를 잘 이해해줄수 있는 또래집단과의 어울림이 부각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래와의 관계를 통하여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타인의 기분과 욕구를 고려하는 인지적 기술을 갖게되며, 다양한 동료집단 구성원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경험을 넓히게 된다. 청소년기의 동료집단에는 계층, 특성 및 규범이 있으며 이러한 집단의 특성이나 규범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집단밖으로 소외되어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또래집단 관계를 통하여 이 시기의 청소년들 에게는 이성과의 만남이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초등학교시절에는 이성보다 동성과의 관계가 가까웠으나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증대와 막연한 호기심은 성적성숙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게 된다. 최근에 중학생들의 이성관계는 고교생들 보다는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교회학생회 활동이나 써클 활동을 통하여 이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성에 대한 과장된 공상이나 환상으로 대부분의 이성관계가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더우기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기 성비행문제로 이는 고등학교 상급생 보다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교 저학년생들에게서 보다 많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사춘기에 들어서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 및 인지적 발달과 더불어 또래집단 및 이성과의 만남을 아무런 사전정보 없이 겪게 된다는 것은 크나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분출구로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성비행등을 포함한 다양한 일탈행동이 나타날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는 오늘날 상업주의에 영향한 저급영상매체와 유해 사회환경, 기성세대가 역할 모델이 되어주지 못한점,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전통적 기능의 약화등 다양한 요인들이 촉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저런 이유로 청소년들은 방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와 가정이 청소년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청소년기에 겪게 될 변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등을 포함한 -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이 시기의 특징적인 적응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등이 포함된 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교 환경은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철저한 교재위주의 교육으로 성교육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만만치 않다.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간 계속 되어왔지만 이것을 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청소년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인지는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중학생 대상 성교육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성교육 내용을 주제별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Ⅱ . 성교육의 내용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내용으로는 사춘기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변화, 남녀의 생식기관 및 임신, 출산과정, 자위행위, 이성관계 및 근친상간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

사춘기는 생식기관의 성숙, 이차성징의 출현 등과 함께 빠른 신체 변화를 보여주는 시기로 일반적으로 여아는 11세, 남아는 13세에 시작된다.

남아와 여아에게서 나타나는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아의 경우는 신장의 급성장과 근육의 증대로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척들은 못알아 볼 수도 있으며 당사자 자신도 갑작스러운 신체적 성장에 다소 어색해 하기도 한다. 또한 변성기를 맞이하게되며 수염과 체모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남아에게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의미를 안겨주는 변화로 남아는 면도라는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남성적 성역할에 한발짝 다가갔다고 느끼게 된다. 이 시기에 겪게되는 고환이나 음경등의 남성 생식기의 성숙과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사정이나 통정은 청소년들을 매우 놀라게 하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친구나 잡지를 통하여 미리 이 현상에 대하여 알고있는 경우도 있으나 부모나 교사는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사전에 해주어야 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을 좌절하게 하는 변화로는 여드름을 들 수 있는데 오늘날과 같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청소년들은 여드름을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심한 경우 피부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여아에게 있어서의 사춘기의 시작은 남아보다 2세 정도 빠른 11세경에 시작된다. 따라서 여아는 같은 나이의 남아보다 키가 더 크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들은 가끔 곤란함을 느끼게 된다.

이 시기의 여아들의 공통적인 걱정중 하나는 살이 찌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지방세포의 증식으로 이들은 전보다 살이 찐 자신들의 몸매에 당황하게되며 체중을 줄인다고 밥을 짖는 등 무리한 식이요법을 강행하기도 하는데 이 시기는 급격한 성장기간이므로 균형잡힌 고칼로리의 식사가 필요함을 교육시켜야 한다. 여아에게 사춘기를 알리는 대표적 사건으로는 유방의 성숙과 초경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매달의 생리주기를 겪게되면서 여아는 자신이 성인 여성으로 향해 한발짝 다가섰음을 느끼게 된다. 여성의 생리현상 또한 성교육 과정을 통해 사전에 정보가 주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생물시간이나 가정시간에서 잠시 이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생리자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일로 다루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생리현상 자체와 생리와 생식의 전과정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아가 생리현상을 이미 맞이하고 있을 때 조차도 남아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남아의 사춘기 변화는 남아에게만 여아의 사춘기 변화는 여아에게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가 남녀의 사춘기의 변화등을 포함한 전 성교육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성교육 또한 인간이해라는 포괄적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2. 사춘기의 인지적 변화

아동기를 벗어나면서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사고는 보다 추상적이 되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어떤 추측과 가정이 가능해진다.

Piaget는 이 시기를 형식적 조작기로 명명하였으며 이 시기의 특성으로 논리적 원칙이 두드러짐을 기술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서는 여러가지 새로운 복합적, 인지적 기술의 출현을 관찰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속도와 거리, 거리와 시간등의 두가지 이상의 변수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미래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이들은 사건의 논리적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자신의 학교 성적에 따라 대학선택과 직업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셋째는 자신의 행동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되며, 어떤 말이나 사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하여 상대론적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즉 그들은 자신이 사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가 자신에게도 어떤 행동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 이와같은 조기청소년기의 인지적, 개념적 발달은 보다 융통성 있고, 비판적이며, 추상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해준다. 그러나 여기에도 청소년들 만의 개인차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사춘기의 정서적 변화

이 시기는 기분의 변화와 변화의 강도가 매우 심한 시기이다. 이유없이 표출되는 극적인 감정 변화는 부모나 형제, 친구와 함께 나누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고립, 위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나 모든 청소년이 이 시기에 극적인 감정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며 사춘기의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평온하게 보내는 청소년도 많다. 그러나 이들의 정서상태나 감정의 변화는 교사나 부모와 같은 기성세대가 이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렇다고 이들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상한 아이’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금물이며 잦은 대화의 시간으로 감정 표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인들은 이들에게 애정어린 관심으로 대하여야 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또한 주변의 환경적 자극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하며 즉각적,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충동성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나 교사들은 기억하여야 한다.

4. 여성의 생식기관

여성은 태어날때 부터 이미 하복부에 좌우 두개의 아몬드모양의 난소라는 기관과 수 많은 난포를 가지고 있다. 사춘기에 이르러 뇌하수체에서 성호르몬이 분비되면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난소내에 있는 난포는 하나의 난자로 성숙하게 된다.

성호르몬은 난포만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아를 여성의 체격으로 발달시켜 임신과 출산에 대비하게 해준다. 따라서 사춘기의 여아는 유방이 커지고 골반이 넓어지며, 지방세포의 증식으로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한 여성의 몸매를 갖게된다. 성호르몬에 의해 매달 한개씩의 성숙한 난자가 난소밖으로 나오는 현상을 배란이라고 한다. 배란된 난자는 난관내에 있게 되는데 난관은 좌우 두개의 난소를 가운데 위치한 자궁과 연결시켜주는 좌우 두개의 가는 관이다. 난관에 나와 있던 난자가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에 의해 여성의 체내에 들어온 남성의 정자와 만나 결합된 상태를 수정란이라고 한다. 만약 수정되지 못했을 경우 난자는 배란후 12-24시간이 지나면 자궁내부에서 흡수되어 없어지며 수정란을 위해 두터워진 자궁내막층도 허물어져 몸밖으로 배출되는데 이 현상을 월경이라 부른다. 한편 난관에서 정자와 결합한 난자(수정란)는 자궁내부로 들어와 자궁내막에 착상하게 되며 계속적인 세포분열로 인간생명을 창조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임신이라고 부른다. 수정란이 착상하는 자궁은 두꺼운 막으로 된 내부가 비어 있는 근육기관으로 서양배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무게는 50g정도이다. 자궁의 주요기능은 착상된 수정란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 주는것이다. 자궁의 하단은 질이라는 좁은 통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질의 하부 끝은 외음부로 개구되어 있다.

이상에서는 성교육내용에 포함될 여성 생식기관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였는데 부모나 교사는 이를 임신, 출산, 부모됨의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지어 생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측면까지도 함께 언급해 주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의 육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5. 남성의 생식기관

남성의 생식기는 음경과 음낭, 두개의 고환 그리고 배출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환은 올리브만한 크기로 음낭이라는 주머니속에 자리잡고 있다. 사춘기가 되면 여아와 마찬가지로 남아도 성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변성, 체모의 출현과 더불어 고환에서 정자를

만들어내게 된다.

정자를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기관이 음경으로 이는 고환앞에 있는데, 평상시에는 부드럽고 말랑말랑 하거나 자극을 받거나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딱딱하게 됨으로써 여성의 체내에 삽입하기 좋은 형태가 되는데 이를 발기현상이라고 한다. 출생시 음경의 끝부분은 얇은 피부주름으로 덮여있는데 이 피부주름 아래 피지와 같은 물질이 고이게되어 불결해지기 쉬우므로 의사들은 이 피부주름을 잘라내도록 권하는데 이를 포경수술이라고 한다. 음경의 하단은 요도로 개구되어 있는데 남성은 배뇨와 사정을 모두 요도를 통해서 한다는 점이 여성과 다른점이라 할 수 있다.

학령기나 조기청소년기의 남아들은 음경의 크기나 두께, 모양등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자신이 친구들 보다 작거나 모양이 다르면 어떠하나 걱정을 할 수도 있다. 교사나 부모들은 눈이나 코, 귀처럼 남아의 음경도 모양이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대부분 정상이라는 것을 설명해줌으로써 이들을 안심 시켜 줄 수 있다. 성적으로 성숙된 사춘기의 소년은 발기현상과 함께 정액배출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정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남아들은 14세경에 첫사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연애에 대한 공상에 빠졌을때, 성적묘사에 대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때, 매력적인 여자를 볼 때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사정을 하게되나 별다른 성적자극이 없이도 사정을 할 수 있다. 때로는 야간에 사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몽정이라고 부른다. 청소년은 몽정이나 사정을 처음 경험하였을때 매우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데 부모나 교사는 남아가 사춘기에 이르기전에 이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줌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생리적 현상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6. 생명의 잉태와 탄생

인간의 생명은 두개의 세포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랑하는 남녀는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하여 육체적 결합이 가능해지며 이로인하여 아버지인 남성의 정자와 어머니인 여성의 난자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자와 난자의 만남은 인류의 세대를 이어주고, 인류 문화를 전승해줄 한 인간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다. 수정에서 출생에 이르는 기간동안의 성장속도는 전생애 그 어느기간 보다도 빨라 수정란은 이 기간동안 크기면에서 무려 2,000억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준다.

아버지의 정자는 아버지의 외모, 지능, 성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어머니의 난자는 어머니의 외모, 지능, 성격등에 대한 정보를 유전자라는 물질속에 그대로 담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으로 인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선조와 부모의 특성을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준다. 태아는 자궁내에서 40주간 양수라는 맑은 물 속에 싸여 탯줄을 통해 모체로 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으며 계속 성장하게 된다. 40주가 되면 태아는 이제 모체 밖에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신체 각 기관이 성장, 발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자궁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 시기에 자궁은 진통을 동반한 규칙적이며 특징적인 수축작용으로 태아를 몸밖으로 밀어내게 되는데 이를 분만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청소년들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출생과정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으며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자신과 타인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해줄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생명의 탄생을 통하여 남성은 아버지, 여성은 어머니가 되며, 이들의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고, 이들의 형제자매들은 삼촌이나 고모, 이모와 같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되며 차세대가 되는 한 생명의 출현으로 사회, 국가, 나아가 전 세계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7. 자위행위

자위행위는 청소년기의 또 다른 징표라고 볼 수 있다. 자위행위는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자극함으로써 성적쾌감을 얻고자하는 행위를 뜻한다. 남아들은 이 행위를 통하여 처음으로 사정을 경험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은 자위행위를 매우 수치스럽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위행위는 십대들이 흔히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관련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성장과정중 자위행위를 하는 남아의 수는 거의 95%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남아보다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여아 또한 상당수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위행위에 대한 부모, 교사 등의 성인의 태도는 과거에는 매우 당혹스러운 반응이었으며 쓸데없이 걱정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종교에서는 자위행위를 죄악시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위행위는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 행동이며 의학적으로 볼때 자위행위가 신체적으로 해롭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위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는 심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은 십대들에게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나 무가치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동성 또는 이성과의 정상적 관계를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더 자주 자위행위에 탐닉하도록 조장시킬수도 있다.

자위행위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위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고 이러한 행위를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며 동시에 십대들에게 이들의 관심을 교우관계나 다른 활동으로 돌려보도록 격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위행위가 신체적인 해로움이 없으며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이유는 없다 하더라도 빈번한 자위행위는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여 고독감과 정서적 불안정,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또한 자위행위에 지속적으로 몰두한다거나 다른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부모나 교사들은 이들의 어떤 내재된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여야 하며, 필요한다면 정신과의사나 청소년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조기청소년기에 십대 소년들은 간지럼을 태우거나 또는 직접 서로를 자극시켜주거나 아니면 또다른 성적 실험행동에 탐닉할수도 있다. 이는 성적 변태의 징후는 아니며 단지 성적충동에 눈을 뜨고 동시에 생긴 열정적인 성적 탐색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나 교사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동을 보일때 나무라거나 수치를 느끼게 하여서는 안되나 이것이 정상적인 성인생활과 사회에서는 수용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설명하여 조기에 단념토록 하여야 한다.

8. 이성관계

일명 데이트라고도 말하는 이성과의 만남은 청소년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일은 오늘날 십대들에게 특히 초등학교 상급생정도의 어린 학생에게도 드물지않게 볼 수 있는 일이며 고교생들에게

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너무 이른 이성관계(데이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며 아이들 스스로 이성에 대하여 자신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을 때까지 이성과의 단독만남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들 전문가들은 데이트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연령으로 소녀의 경우는 15-16세, 소년의 경우는 이보다 1~2년 후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과 성숙에 따라 상당한 개인차가 있으므로 반드시 몇 살이 데이트를 시작하기에 좋다는 말은 할 수가 없다.

어린 나이에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십대들의 데이트는 또래집단의 데이트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조이거나 또는 부모로 부터의 사랑과 관심의 부족,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그외에 개인적 갈등이나 고민을 함께 나눌 친구를 찾기 위해서도 데이트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데이트는 상대방을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하여 줄 수 있다. 그들은 부모들이 자신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주기 위해 만난다고 말한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한번도 편안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희망과 꿈을 나누며 서로에게 서로가 중요함을 인식시켜 준다. 그러나 십대 청소년들은 그들의 이러한 만남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십대들의 데이트는 사랑과는 다른 것이다. 십대들은 자신을 위하여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정감, 편안함 및 관심을 얻기 위해 데이트를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또한 성숙한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정서적 성숙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십대청소년들이 너무 일찍 이성관계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 교사 또는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들에게 관심과 애정, 정서적 지지를 해주어야 하며 아울러 자신에 대한 중요성과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의 단체활동이나 스포츠, 음악, 예술, 무용, 웅변, 기타 써클활동의 적극적 참여나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등을 권장할 수도 있다. 중, 고등학교나, 청소년단체, 부모-교사 모임 등에서는 청소년기의 이성관계, 사랑, 결혼 및 가정, 사회생활 등에 대한 집단토의를 통하여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1) 데이트 상대선택을 위한 교육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십대자녀들이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부모들이 십대자녀를 위하여 직접 데이트 상대를 골라 줄 수는 없으나 외모, 몸매와 같은 외적인면 보다 취미나 성격적 특성과 같은 내면적 요소에 입각하여 이성친구를 선택하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그들과 사회경제층으로 동일한 계층이거나 같은 종교를 가진 아이와 만나기를 원할 수도 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청소년자녀에게 기혼자나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평판이 나쁜 학생과의 교제를 금하도록 경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의사항이 십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부모나 교사들은 또한 청소년들이 매력을 느끼는 이성의 공통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십대들은 타인에 대한 호의적 태도, 명랑하고 생동감 있는 모습, 밝고 쾌활함, 마른 체격과 매력적인 외모, 만능 스포츠맨을 좋아한다고 하였으며 스스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로도 이러한 자질을 갖추어 인기를 끌고자 애쓰게 된다.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게 인기있는 '귀여운 여인'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남학생들 또한 '귀여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는 남녀관계나 성역할이 엄청나게 진보적으로 변모하였다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 보다는 한 남성에게 선택당하는데 더 신경을 쓴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성문화가 아직은 봉건적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건전한 청소년 이 성교체와 청소년 성문화 구축을 위한 내용들이 성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데이트를 위한 조언

청소년이 데이트에 대하여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은 데이트를 신청하는 방법, 데이트를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방법, 일단 데이트가 시작되었다면 얼마나 자주 만날것인지, 데이트에서는 무슨 말을 할지, 데이트를 멋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일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것들이다. 부모, 교사 또는 청소년자녀들은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조언해줄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문제는 애정표현은 어디까지 할 수 있으며 혼전성관계에 대한 의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교 상급생이나 대학생들의 이성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부모나 교사들은 어떤 경우라도 이것이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사회의 규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임을 상기시켜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9. 근친상간

근친상간이란 혈족간의 성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성행위란 직접적 성교뿐만이 아니라 성적학대, 성추행, 성희롱, 성적유혹 및 변태적 성행위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근친상간은 대부분의 사회와 문화권내에서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법, 종교, 윤리의 엄중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근친상간의 정확한 발생빈도는 알려진 바 없으나, 주된 근친상간의 유형으로는 아버지 - 딸, 형제자매(예, 오빠-여동생)간의 근친상간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근친상간의 피해자는 대부분 아동이나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성적학대 및 근친상간을 당한 아이는 심한 죄책감과 수치심, 우울증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며 이로인해, 학습장애나 성격장애를 보이고, 심한경우 정신장애에 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연구문헌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근친상간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성적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가족이나 친척간의 지나치게 허물없는 태도나 필요이상의 신체접촉을 자제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근친상간의 발생배경을 역기능적 가족체제가 유지되기 위한 일종의 방어수단, 또는 역기능적 가족체제의 한 징후로 보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근친상간을 금기시함에도 불구하고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는데는 사회적, 문화적, 생리적 및 심리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이상에서는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성교육자들은 이러한 성교육을 통하여 이 시기에 발생가능한 성문제에 대해 이들을 사전에 준비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기적으로 볼때 중학교로의 진급은 이 시기의 청소년에게 매우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이다. 중학교는 국민학교때와는 매우 다르며 아이들은 새로운 발달과제에 대한 도전을 맞이하게 된다.

더우기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는 기쁨으로 다가온다기 보다 또다른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부모와 교사의 적절한 지지가 없다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자위행위나 벗나간 이성교제등의 성적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중요한 점은 이 시기의 성적활동이 비행, 폭력, 절도 및 약물남용등의 다른 문제와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성교육은 성문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이나 생활지도를 함께 병행할 수 있다.

성교육자는 이 시기 청소년의 인지적 성장을 고려하여 성을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인류학적, 역사적 차원에서 다루어 주어야 한다. 즉 성교육이란 진화의 역사속에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또다른 탐색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성교육을 실시할 자격있는 교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깊히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1. 김현수, 김현실, 신화식, 민병근(1990), 근친상간의 임상적 고찰 및 중례분석, 고대의대 신경정신의학 동문회보, 7(4), pp2-26
2. 민병근, 김현수(1992), 성비행 청소년의 가족 역동, 신경정신의학 31(3), pp.604-627
3. Laycock, S. R. (1973). Family living & Sex education, Mil-Mac Publications Ltd, Toronto, Canada.
4. Newman, B.M. & Newman, P.R. (1995). Development through Life -A Psychosocial Approach-, Brooks / Cole Publishing Company, U.S.A.